

2월의 계란전망

강재명
본회 지도조사부 과장

“2월중 내내 약세권에서 3월 회복 예상”

호황이 지속되면 반드시 물량증가가 필연적으로 나타나면서 가격이 하락세로 반전되고 반대로 값이 나쁘면 물량감축으로 다시 가격이 회복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최근의 계란값 호황으로 입추열이 되살아나는 근본 물줄기가 움직이기 시작한 느낌을 준다. 1년이 넘는 장기호황으로 시설개선과 계사신축, 빈계사에 병아리 넣기에 바빠진 현상은 좋게 보이면서도 향후 계란값 변화를 예고해 주고 있다. 값이 좀 떨어지면 노계도태와 같은 근본적인 생산감축 보다는 환우 등의 방법으로 일시적인 감산 방안을 많이 쓰게 될 것

으로 보여 계란호황도 서서히 견히고 있는 느낌을 주고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게 되는 시기가 도래한 것 같다. 병아리값에 따라 병아리 물량은 증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경제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산란용 배합사료 생산실적 및 추정을 해 보면 초생추사료가 89.12월 3,679%, 90년 1월이 3,100%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0%, 18% 증가세로 병아리 생산의 증가를 나타내 병아리값 회복과 연관된다.

산란사료는 12월 136,178%, 1월이 108,000%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각각 0.5%증가, 9%감소세를 보여 아직까지 계란생산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89년도 P.S 입추수수가 전년도에 비해 24% 증가했고 국내생산도 생산계획치에 약간 못미치는 35만여수를 생산하여 금년에도 실용산란병아리 생산잠재력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구정의 대수요기 이후 계란값의 약세는 매년 나타나고 구정으로 인한 인산된 계란값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또 소비부진으로 더욱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약세권의 계란값으로 일부에서는 환우내지 노계도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하순 이후 보험세에서 소비가 다시 회복되는 3월 이후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2, 3월 봄입추 시즌을 맞아 작년도와 같이 입추활기를 떠면서 병아리물량이 부족현상을 빚으면서 가격 또한 초강세가 예상되면서 봄입추 시즌이 끝나는 4월이후 안정세를 찾을 것 같다.

- 믿을 수 있는 중추 수시 분양중 -

상 경 농 장

전화: (0461) 741-6080, 6952

표 1. 산란용 P.S 입식현황

년도별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비 고
88		52.0	21.5	16.1	27.9	65.6	38.4	8.3	41.9	2.9	24.0	49.4	55.6	403.6	실제입추수수 (수입계포함)
89		84.9	40.1	23.5	41.6	56.1	28.4	24.0	14.8	67.5	45.3	40.6	33.2	499.9	
89		45.3	31.8	28.7	68.6	49.4	25.4	25.8	17.0	21.5	16.5	27.8	50.8	408.6	89년국내P.S 생산계획량

그림 1. 대란고사가가격(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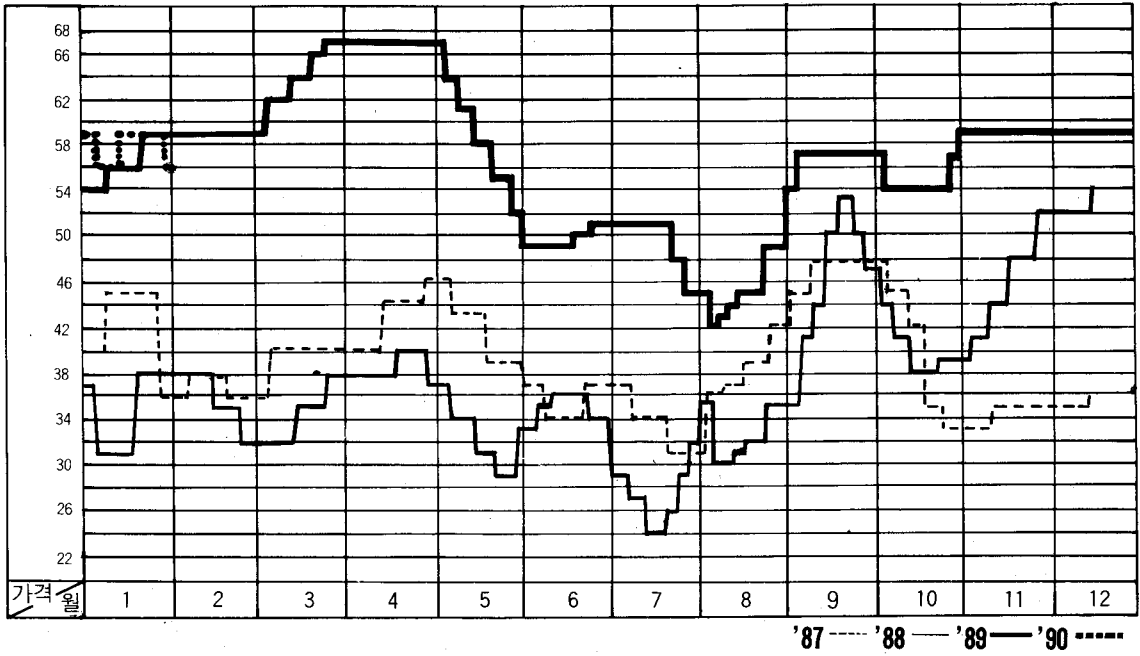


그림 2. 배합사료 생산실적

